

영랑과 詩 그리고 모란...강진의 찬란한 봄 유혹



▲영랑 생가 영랑 김윤식 선생은 1903년 1월 16일(음력 1902년 12월 18일) 강진군 강진읍에서 김중호씨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영랑 선생은 1950년 9월 29일 작고하기까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80여 편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60여편이 광복 전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이곳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쓰여졌다고 한다. 지난 2007년 중요민속문화재 제252호로 지정된 영랑 생가에는 샘과 동백나무, 장독대, 감나무 등이 남아있으며 모란이 많이 심어져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8월 '세계모란공원' 조성...사계절 내내 모란꽃 가득 국가별 모란 심고 야간경관 만들어 강진 랜드마크로 29~30일 제13회 영랑문학제...축하공연·백일장 개최

을 봄에도 어김없이 모란이 활짝 폈다. 강진군 강진읍내 영랑생가와 생가에 이르는 길에도 모란이 가득하다.

영랑의 숨결이 모란에 스며든 덕분에인지 모란 향기도 은은하게 번진다. 시심(詩心)이란 이럴 때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나그네는 표현할 길이 없다. 영랑생가는 늘 북적인다. 어린 학생부터 문학도, 일반인까지 무수히 다녀간다.

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는 이맘때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강진군은 오는 29~30일 제13회 영랑문학제를 연다.

강진군은 또 오는 8월이면 국내 유일의 모란을 테마로 한 '세계모란공원'을 조성하고, 유리온실 등을 활용해 사계절 내내 모란이 피어나는 강진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국내 유일 사계절 내내 '모란의 향기

속으로' =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은 '모란이 피기까지는'를 피워낸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과 그의 삶, 흔적, 생가를 중심으로 세계모란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모란을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테마공원이다.

강진군은 올해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 중 정하고 야심차게 추진중이다. 세계모란공원은 기존 강진읍내 보은산 도시공원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친환경적 생태문학공원의 의미도 담고 있다. 올 8월 완공되며, 4계절 내내 은은한 모란 향기가 퍼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강진군은 이를 위해 사계절 내내 가동하는 유리온실을 조성하는 한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추모비를 세우는 영랑추모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모란의 자세를 자태를 느낄 수 있는 세계모란원, 공원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를 만들고 있다.



영랑 생가 내에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새긴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유리온실은 봄에 모란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기술을 통해 저온저장을 이용, 사시사철 내내 모란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모란꽃은 봄의 끝자락인 4월 한 때, 5월 즈음에만 볼 수 있다. 세계모란원은 프랑스와 일본,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의 국가별 모란을 심어 이 곳을 찾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계획이다.

강진군은 아예 모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영랑모란'을 상표출원하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선점했다. 강진군은 또 세계모란공원 내에 야간경

관 조명을 설치해 낮 못지않은 밤을 구연하고, 강진의 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앞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는 모란·작약의 재배와 공급기반을 만들어 군민의 소득을 높일 계획"이라며 "세계모란공원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 미래 강진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영랑 김윤식 선생과 모란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만든 테마 문화공원인 세계모란공원은 영랑생가와 함께 강진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세번째 영랑문학제 전국 문학도 영랑생가서 글짓기 = '남에는 영랑, 북에는 소월', 영랑의 시혼과 함께하는 제13회 영랑문학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영랑생가 일원에서 열린다. 영랑시문학의 밤 행사는 29일 오후 5시 특별무대에서 영랑시문학상 시상, 축하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제13회 영랑시문학상 수상자는 강원도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진하 시인이다. 수상작품은 '영랑의 돌레'(문학동네)다.

영랑시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올해로 등단 30년을 맞는 고진하는 성(聖)과 속(俗)이 갈등·화해하고 공존하는 삶의 과정을 특유의 사유와 감각의 방식으로 탐색해 온 시인"이라며 "영랑선생이 평생 일구어 낸 서정의 깊이와도 친밀하게 상통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고진하 시인은 "꽃망울이 터지려고 팽팽해지는 지난 3월 전화를 받았다"며 "수상소식에 반갑다기보다는 약간 긴장이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 마음이 팽팽해졌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올해 영랑시문학상은 2015년에 발간된 모든 시집을 대상으로 예선에서 10권을 골라 본선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세번째 영랑백일장도 영랑생가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 중, 고등부, 대학 일반부로 나뉜다. 부문은 운문과 산문, 입상자는 오는 5월 19일 발표되며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개별 통지한다. 심사는 예선과 본선이 있고 본선 심사는 현역작가가 맡는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이제 땅땅거리고 사십시오!!

2016년 토지 재테크 성공전략 무료 세미나

당신이 미처 몰랐던 토지의 미래까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 진단

서남해안의 대이벤! 집중분석 서남해안 최고의 투자 Point!!

강사 : 재테크전문강사, 현지 실전전문가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날 짜 : 4월 27일(수) 오후 2~4시, 저녁 7~9시
주 관 : 코아토지재테크 상담소
찬조연사 : <갈대의 순정> 가수 박 일 남 (전국 예능인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예약전화 ☎ 062)576-7955
※ 당일 혼잡하오니 사전예약 필수 바랍니다

새 주인을 찾습니다 **팬션 매매**

아름다운 팬션 코트에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 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